지역 소식통

부안군,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 실시

부안군은 2022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1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된 모의훈련은 생물테러 감염병 유입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됐다.

부안군 생물테러 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은 부안군과 부안소방서, 부안경찰서, 육군제8098부대 1대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생물테러 초동조치 교육 및 개인보호복 착탈의, 다중탐지키트 시행, 검체수송용기 포장 등 보건인력 중심의 실습형 훈련의 형태로 진행됐다.

박찬병 부안군보건소장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번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통하여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안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양파 기계 노동력 생산비 절감 '앞장'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가 양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양파 재배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 양파연구회는 2019년부터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계를 활용한 양파 정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파 기계화 작업은 인력 대비 80%의 일손 절감 효과가 있어 인력난 해소와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인건비 상승에 대비하고 고품질 양파 생산을 위해 11일 정읍시 양파연구회(회원 46명)를 대상으로 양파 기계 정식 현장 지도에 나섰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양파 정식은 10월 하순을 시작으로 11월 상순까지 적기 정식해야 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기부하고 혜택받으세요"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공포 · 답례품 선정 · 기금운용위 구성 등 홍보 '총력'

정읍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제도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연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 기금 설치 등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공포된 조례에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자체는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개인이 10만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3만 원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지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정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인의 날' 기념식

정읍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 농업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제27회 정읍시 농업인의날 기념행사가 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정읍시 농민단체연합회(회장 김태선) 주관으로 농사가 마무리되는 수확기에 먹거리 생산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고경윤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과 농협 조합장, 농민단체·축산단체 연합회,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날을 축하하고 희망찬 미래 농업을 다짐했다.

행사는 쌀값 폭락 등 어려운 농업정세와 10.29 참사 등 대외환경에 따라 문화행사는 생략,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인의날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 위주의 행사로 축소해 진행했다.

기념식은 농업인의날 다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농업인 표창, 대회사, 축사, 연대사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지역농업발전에 기여

한 공이 큰 사)대한한돈협회정읍지부 김두술 씨가 농업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올 한해 농업발전에 헌신해 온 정양권, 김경주, 김성수 씨에게 시장 표창을 시상하고, 문선희, 은세미, 한영석, 도티투이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태선 회장은 "마음고생으로 힘든 올해는 서로 의지하며 보내고, 내년에는 제값 받는 풍년 농사로 위로받는 한 해가 되자"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농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고창군과 농업인단체고창군협의회(회장 최종엽)가 지난 11일 고창군실내체육관에서 '제24회 고창군 농업인의날'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고창군의회 이경신 부의장 및 군의원, 지역 농업인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고창군농업발전에 기여한 유공농업인 박종덕(고창읍) 외 14명의 농업인과 산학연유공자 김영선(전북대) 교수가 군수 표창을, 전종준(고창군농업기술센터)외 2명이 공포패를 수상했다. 특히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11m 가래떡을 전시, 커팅식을 진행했다.

부대행사로는 쌀수급 과잉을 가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가루미를 이용한 분질미와 이를 이용한 빵 시식행사, 미래 농업을 선도해 갈 청년농업인 홍보관, 생활개선 연구회(천연염색, 음식연구회, 전통규방공예) 전시 홍보관 등 다채로운 전시 행사를 열었다.

또 농업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2023 고창방문의해 참여 퍼포먼스'와 서명부를 고창군수에게 전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에 오면 즐길거리·맛있는 음식에 감동'

14개 읍 · 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대군민 홍보방안 논의

고창군 14개 읍·면이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분위기 조성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읍·면장과 관련 팀장을 대상으로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대군민 홍보방안'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해' 분위기를 끌어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등이 논의됐다.

먼저, 군민들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와 분위기 만들기가 이어진다. '고창에 오면 다양한 즐길거리와 맛있는 음식에 감동받는다'를 주제로 14개 읍·면별 관광토론회를 비롯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만드는 관광지도 등 특색있는 홍보자료가 만들어 진다.

또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더

친절하게, 더 청결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3더 운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꽃길만들기,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도 진행된다.

고창군 차원에선 전 공직자가 고창문화관광 전도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군민까지 확장해 나간다. 특히 고창방문의해가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과 고창 관광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확충과 볼거리 마련 못지않게 친절한 환대 의식이 중요하다"며 "주민들과 함께 다시 찾고 싶은 고창, 머물고 싶은 고창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흥덕농협을 사업 대상지로 한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최종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4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친환경농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단화된 들녘의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생산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지인 흥덕농협은 친환경 퇴비생산에 필요한 저장시설과 탈취시설, 장비를 확충해 환경보전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3월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2022년 저탄소벼 논물관리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선정으로 명실공히 친환경농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인 고창에서 친환경 농산물과 환경보전을 위한 중요 국가정책사업에 선정된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정책 및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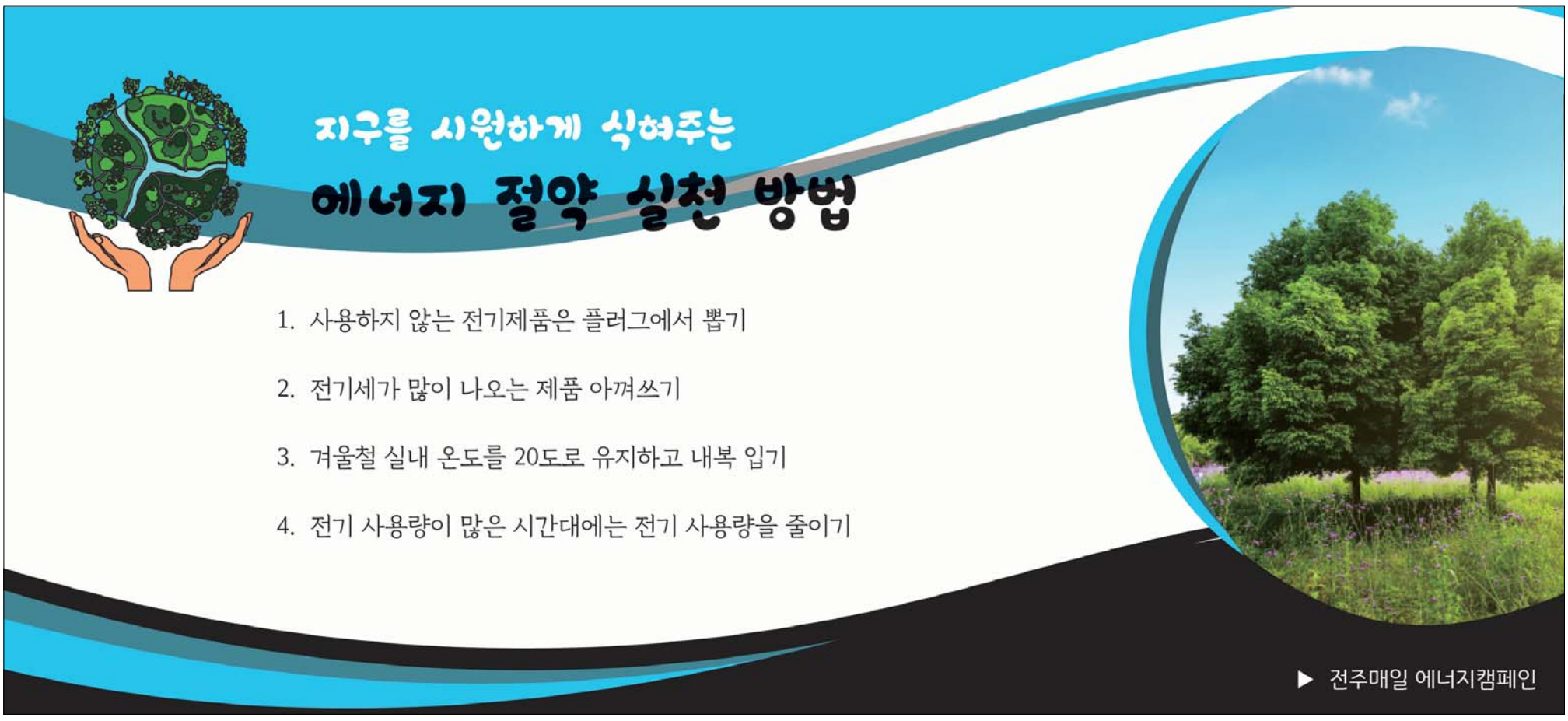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가을의 맛 특집 라이브커머스 판매성황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지난 9일 우체국 쇼핑몰 라이브방송을 네이버 쇼핑LIVE에 송출하여 부안군 대표 제철 농특산물을 성공적으로 판매했다.

지난 9일 오후3시부터 한시간반동안 진행된 '부안군, 가을맛축제'를 테마로 한 방송에서는 실시간 시청자수 25만명을 기록,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라이브방송에서 △해풍맞고 자란 고당도 대봉감, △제철에 잡아 통통한 살이 가득 차오른 가을 숫꽃게, △간척지에서 재배해 맛과 질이 우수한 천년의솜씨햅쌀이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었으며, 방송시작 40분만에 대봉감과 숫꽃게는 완판되어 총 1,600건, 23백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였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라이브방송에서 얻은 성과를 발판삼아 다양한 소비패턴에 대응할 판매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안군 상품이 널리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